

## 각 부분의 입장고수보다 통합체계 동반자 역할로 발전해야

**한** 국육계산업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육계산업 계열체계 총점검 심포지엄이 지난 11월22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육계산업의 현실을 점검하여 육계산업의 계열체계 전환시 구조개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그간 운영하는 과점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지금까지는 축산분야가 농장생산위주의 획적인 기술향상에만 치중하였으나 국제경쟁력을 전제로 하는 오늘날은 농장생산물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획적인 기술특화와 종적인 기술 통합을 실현하여 어떤 정책적 보호에 의해 잔존하기 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양계산물의 개발,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공개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구조 개선에 따르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전계열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젊은세대가 주축이된 기업통합주체, 자재업체, 법정협동조합, 사육자주인 회사형태, 사육자와 기업인이 합작·설립한 경영체 등 통합주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통합체계에 대한 사육자의 반응은 대개 부정적이거나 별로 호감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유는 기존경영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경영주도권을 빼앗긴다는 느낌 등으로 통합체계의 출현을 방관내지 회의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은 통합체계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통합이 신규농가와 더불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른 사육경쟁의 위협, 국제경쟁력 향상, 경영불안 등에서 벗어나려는 자위방어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정부에서도 85년 부터 "닭 계열화사업 촉진" 시책을 펴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91)에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완전통합을 지향함과 동시에 업체당 융자한도도 25 억원으로 늘리고 각종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통합체계 지원은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시책으로 평가되며 이 체계의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의 계열체계 구성요소(종계, 부화, 사료, 약품, 기구, 사육, 도계, 가공, 유통, 외식)들의 실상은 종계의 경우 육계생산비 중에서 초생추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약 23%로 미국, 일본, 태국이 15~16%인데 비하여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 육용병아리 값이 낮은 나라는 육계생산비가 낮고 그 결과 육계사양관리 기술이 향상되어 전체적으로 육계 생산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통합시 육용계 계열체계내에 종계업을 도입하여 구입시의 비용절감과 기타 여러가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부화의 경우는 5~6년전만 하더라도 육계생산비 중 병아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내외였으나, 최근에는 2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육계계열



화사업의 정착과 안정적인 병아리의 생산공급을 위해서는 부화장과 계열주체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절실하다. 그렇다고 계열주체에서 새로이 종계장이나 부화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종계장, 부화장과 계약생산 또는 동업의 형식으로 병아리를 생산공급하여 종계·부화장의 증가로 생산과잉 없이 안정적 병아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제시되었다.

사료분야는 60여 회사가 품질높은 사료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으며 도계, 사육, 약품, 기구 등의 분야도 비교적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계열화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분야에서는 좀더 소비자품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유통에서는 계육취급업자나 생산자가 너무 자신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말고 국민보건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였다.

외식업의 경우 현재 외식업협회의에 등록된 업체수가 30여업체에 이르며, 대부분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닭고기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확대와 과다출혈경쟁으로 부작용도 생겨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로 부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및 유통가공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며 각 업체의 전체 수준향상 및 공동이익의 창출, 국내식품업체를 관찰하고 있는 보사행정제도도 우리실정에 맞는 기준 및 규제의 설정, 정확한 자료조사 및 수집을 통한 정책수립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영입, 이익의 재투자에 의한 시설개선, 관리, 경영, 기획 등에서 초보적 단계의 확일적 운영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이론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외국의 계육관련 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고급전문인력확보 및 선진형태의 관리·개발기능을 갖춘 기획운영이 이루어

어저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전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계열화로 전환시 많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는데 토론회 참석했던 한 생산자는 약 1년간 계약사육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계열화체제내에서의 장점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지적하기도 하였다.

입·출하시기에 대한 걱정해소, 자급에 대한 안정,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 계획성있는 작업 등의 장점이 있으나 통합주체가 미래보다는 현재의 수지타산에만 급급하여 마찰을 유발할 수 있고, 사료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며, 병아리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자와 긴밀한 협조가 부족하며, 계열주체에서 완전계열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계약서가 너무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는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계약서 작성시에는 기준이 모호하여 업체마다 통일성없이 작성되고 있고 대부분이 생산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한국육계산업협회의와 대한양계협회가 제정 배포한 “육계계열생산 표준계약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육계산업은 바야흐로 통합체계를 지향하는 구조로 개편되어 가고 있다. 지금의 독자경영은 부분통합으로 부분통합은 완전통합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통합이 지배하는 산업체계가 형성되고, 통합주체와 사육주체로 기능이 양분되어 기업통합과 협동통합이 상호 경쟁하는 능률적 체계가 확립되도록 사육자나 통합주체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국 육계산업이 경쟁력을 획득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해 나가면서 국내산업기반을 강화해야만 선진양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진단하였다. (이창훈기자) **양계**